

미술과 시간 보내기 6

단색화 열풍 이해하기

전 세계 미술계에서 부는 한국의 단색화에 대한 시선이 뜨겁다. 단색화의 인기는 우선 세계의 주요 옥션이나 상업 갤러리 등의 미술 시장에서 뚜렷한 작품 가격의 상승과 거래량의 증가로 느낄 수 있다.

2015년 겨울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박서보 작가의 단색화 묘법은 11억 6,000만 원에 낙찰되었고, 2016년 4월 4일 단색화의 대표적 거장으로 꼽히는 김환기 작가의 '무제'가 홍콩 경매에서 48억 6,750만 원(3,300만 홍콩달러)에 낙찰되어 한국 근현대작품 중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단색화 작품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미술시장 분석기관 아트 프라이스는 '2015 아트마켓 트렌드 리포트'를 통해 세계 미술 시장에서 한국의 미술품 경매매출 규모가 처음으로 7,500만 달러(약 898억 9,500만 원)로 10위권에 진입했다고 밝혔고 이러한 원인으로 단색화 열풍을 꼽았다. 2016년에는 해외 아트 페어를 중심으로 단색화 열풍을 선도한 국내 최대 화랑인 국제갤러리가 연 매출 '1,000억 원'을 처음 돌파했고 양대 경매회사인 서울 옥션과 케이옥션은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해외 미술 잡지들도 앞 다투어 단색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현하였다. 영국의 미술 잡지 프리즈<Frieze>는 단색화 특집 기사를 내보내며 주요 작가들의 작업세계를 조명했으며 미국의 뉴욕 타임스는 2016년 세계 미술계에서 한국의 단색화가 주목을 받으며 새로운 한류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러한 현상은 1988년 뉴욕의 아시아 소사이어티<Asia Society>와 샌프란시스코 현대 미술관에서 기획했던 <Inside out: New Chinese Art> 전시 이후 전 세계에 중국 현대 미술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던 현상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의 단색화가 1990년대부터 불어 닥친 중국 현대 미술 열풍 이후 세계 미술 시장의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핑크빛 예견을 내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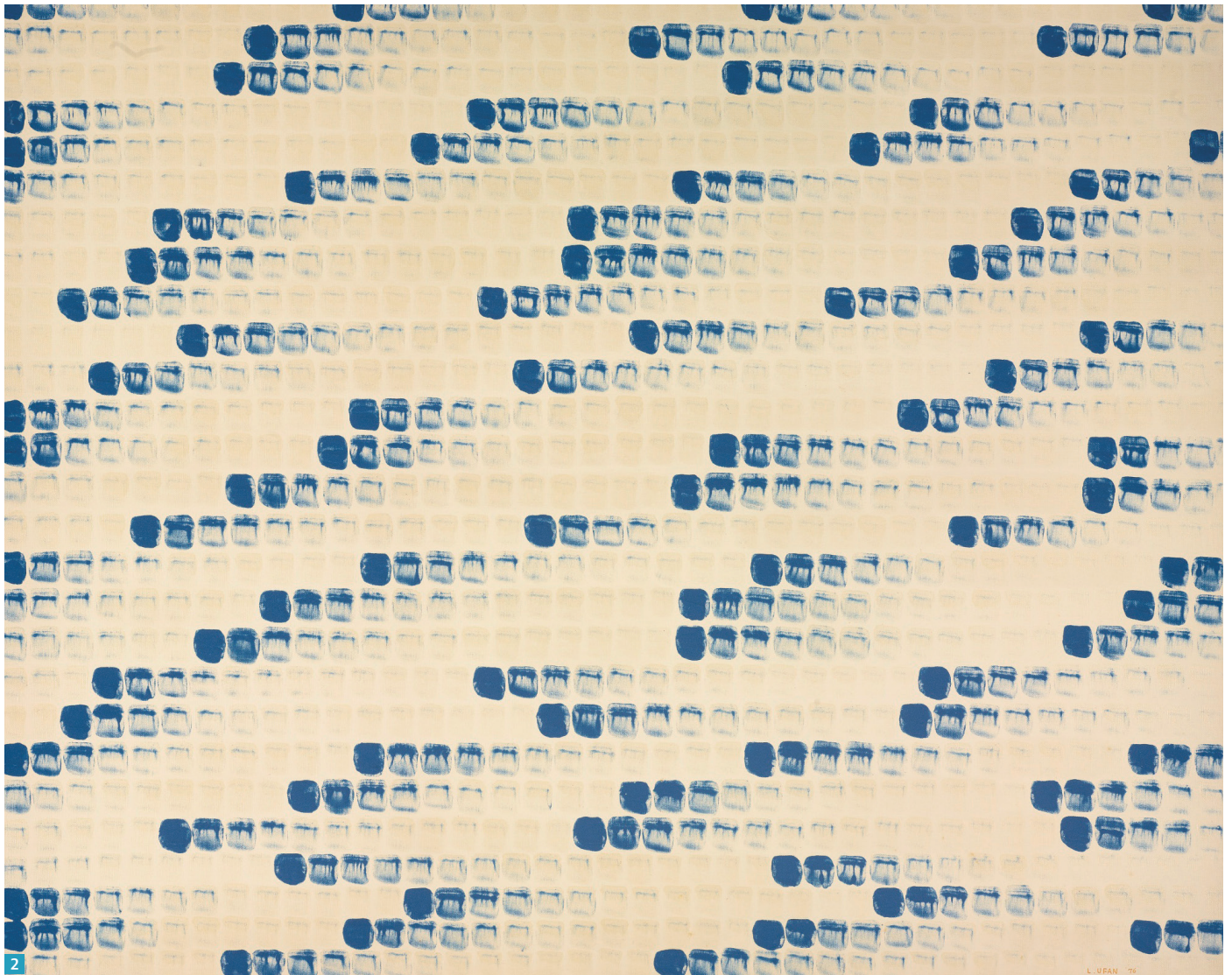


1

2015년 홍콩 크리스티 아트 페어에서 단색화 전시,
사진 출처 : 크리스티 Christie's

2

이우환, 1936년. <점으로부터> 캔버스 위에 광물 안료와 유채, 사진 출처 : Sotheby's



그렇다면 1970년대 태동되었던 단색화의 흐름이 40년이 지난 현재 왜 전 세계 미술시장에서 집중 재조명되고 있는지, 단색화란 어떤 미술의 흐름이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단색화(Dansaekhwa)란 모노크롬 회화, 모노톤 회화, 단색평면 회화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던 한국의 단색화를 2012년 국립 현대미술관의 전시 이후 공식적으로 '단색화(Dansaekhwa)'라는 고유명칭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불리고 있다. 1970년대에 태동하여 일체의 구상성을 배제하고 화면을 보다 순수하고 단일한 색조의 명도와 채도로 바꾸고 단일한 표면으로 표현하여 평면성을 강조하는 회화로써 한국적인 정신성을 부각시킨 추상화파를 일컫는다.

단색화에서 중요한 키워드인 회화의 평면성은 서구의 미니멀리즘과 같은 맥락으로 일체의 형상과 이미지 묘사를 거부하고 회화의 가장 근원적 조건인 평면 즉 캔버스 자체의 2차원성을 회화의 유일하고 근원적 조건으로 본 것과 같은 관점이다.

회화는 원래 수백 년간 2차원의 평면 속에 3차원의 공간을 재현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의 등장으로 더 이상 사물의 객관적 사실 재현이 무의미하게 되자 회화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기게 되었고 회화의 순수성, 즉 작가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 그리고 개념과 같은 표현할 수 없는 실체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추상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서구의 미니멀리즘이 물성에 주목해 사물 자체로의 환원, 즉 회화를 물체로 보는 개념에 주목한 것 달리, 한국의 단색화는 정신적 차원을 강조하여 한국적 미의식과 정체성을 발현하는 것에 의미를 더했다.

단색화의 움직임은 1960년대 후반, 경제발전에 따른 시대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전위적인 추상 파괴와 서구적 행위 예술을 포함한 실험 미술에 지친 젊은 작가들은 진지하고 본질적인 조형적 실험을 추구하며 근원적인 것을 찾아 나섰는데, 이들은 자연을 근원적인 형태로 환원시키는 형태 실험에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1975년 <예골 드 서울 전>에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어 박서보, 하종현, 윤형근, 정상화 등에 의해 집단적 미술 양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단색화 화파의 시작이 된다. 일본 모노하 화파의 이우환은 후에 일본에 이들을 소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초기 단색화 화파에 다양한 영향을 끼쳤다.

단색화는 동일한 제스처의 반복과 형태 또는 기호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는데 박서보 작품의 묘법이 그러하다. 그는 처음에 그림의 초벌 칠을 두껍게 바르고 그것이 마르기도 전에 그 위에 연필의 선을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규칙적인 방향으로 그어나가는데, 이것은 이미지를 지우고 흔적만 남기는 행위를 기록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떤 목적성도 갖지 않고 무의식적인 긁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과정은 마치 수행하는 과정과 비슷한데, 대상과 하나가 된 듯한 일체감과 함께 자아에 대한 의식이 사라진 몰입의 세계가 그것이다. 그리고 안료를 바르는 행위(즉 그리는 행위)와 연필로 쓰는 행위의 겹침으로 이루어진 표면은 서화동원(書畵同原: 글과 그림은 같은 근원이라는 이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3



4

단색화의 두드러진 색인 오묘한 백색은 우리 고유의 미적 감각과 정신성을 상징하며 여러 번 겹쳐진 반복 행위로 인한 표면의 촉각적인 텍스처, 표면의 물질성 강조한다. 또한 한국의 백색은 서양에서 보는 백색과 가시광선 차이에 의해 미묘한 미감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차이는 한국적인 색감으로 자리 잡게 되며 단색화가 한국의 태생적 미술이라는 구별 점으로 작용하였다. 하종현의 작품들은 이러한 특징을 잘 나타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색화가 미술시장이 만들어낸 기획물이며 현대사의 열풍이 곧 사그라질 것이라는 한국 비평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또 단색화의 미술사적 범주와 미학적 정당성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시각과 함께 역사적으로 동시대 정치와 사회 상황에 침묵한 상황 또한 비판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3

박서보 1975년 <묘법 No. 41-75> 캔버스에 오일과 연필, 사진 출처: Christie's

4

2016년 4월 런던 화이트 큐브 갤러리에서 열린 박서보 개인전 전시 전경, 사진출처: 화이트 큐브 갤러리

5

하중현, 접합 No 98-04, 1998, 출처: Christie's

6

김환기<5-IV-71 #200 Universe>1971, 2015년 56회 베니스 비엔날레 단색화 전시 전경



이렇게 국내에서의 비판적 시각은 활발한 이론적 토대 연구와 비평 및 학술적인 연구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국제 미술계에서 일본의 구타이 그룹과 유럽의 제로 그룹과 비견되는 한국의 두드러진 사조로 정착하기 위해 한국 단색화의 미감과 미적 가치에 관한 재조명과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아트 스펙트럼 2016

삼성 미술관 LEEUM

2016.05.12 ~ 2016.08.07

삼성 미술관 LEEUM이 재능 있는 신진작가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2년마다 여는 전시인 <아트스펙트럼 2016>이 2016년 5월 12일부터 8월 7일까지 열린다. '아트 스펙트럼' 전시에서는 30대 작가들 10팀이 선정되어 회화, 사진, 영상, 설치 등 작품 40여 점을 선보이게 되는데 이 전시 기간 중 심사를 통해 작가 1명(팀)이 선정되어 상금 3,000만 원이 수여된다. 올해는 2014년 이완 작가에 이어 두 번째 '작가상' 수상자가 나온다.



한국의 에코 세대 미혼 남녀의 결혼을 분석해 현재의 경제적 현실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한 작가그룹 옵티컬 레이스(김형재, 박재현)의 '가족계획', 예술만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작가들의 고민을 반영해 자조 섞인 유머를 작품으로 풀어낸 옥인 콜렉티브(이정민, 진시우, 김화용)의 '아트 스펙트럼', 한국 남성이 거쳐야 하는 통과례인 군복무를 소재로 집단과 개인의 관계를 다루는 박경근의 '군대: 60만의 초상', 사물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단위를 소리에 적용해 소리의 존재를 실체화하는 김영은의 '1달러어치' 등 한국사회의 처한 현실과 특징들을 젊은 작가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작품이 주를 이룬다.



옥인 콜렉티브 <아트 스펙트럼>, 2016, 출처: 리움 미술관 공식 홈페이지



박경근 <군대: 60만의 초상>, 2016, 출처: 리움 미술관 공식 홈페이지

현재 희망 없는 대한민국의 삶을 사는 젊은 작가들의 새로운 시도와 탐구가 앞으로 한국 현대미술에 어떤 가능성으로 다가올지 가능해보는 전시가 될 것이다. 자세한 전시 일정은 리움 미술관 홈페이지 <http://leeum.samsungfoundation.org>를 통해 확인하자.